

보육원 헨따 아동이 중학교를 졸업했고 오랫동안 함께 지내왔던 여학생 핑끼와 잉, 그리고 남학생 낫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. 이제 5 월이면 핑끼와 잉은 방콕에 있는 대학을, 낫은 우본에 있는 랏차팻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.

힘든일,기쁜일 다 겪으면서 자식처럼 키웠기에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잘 자라준 아이들이 고마웠고 있는 그 곳에서 예배자로 설 것이기에 축복하며 보냈습니다. 핑끼와 잉, 낫이 주안에서 더 성숙하고 주님 섬기는 자로 잘 성장 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.



동네 아이들이 센타 운동장에서 매일 저녁 축구를 하면서 친목을 다지는중 올 해 부터 작게 동네 축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축구 규칙과 경기중 예의를 다짐케한 후 경기에 들어 갔습니다. 동네 별로 6 팀이 모여 축구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마침 노회에서 축구장을 빌려 10 팀이하는 경기에 참여하여 우리교회 팀이 감사하게도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

